Macro

일시적인 속도 조절, 안정적인 성장 경로

Economist 이하연
hayeon.lee@daishin.com

- 고유가, 고금리 여파로 경기 회복 속도 조절 불가피. 다만 경기 부진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경기침체 우려로 급격한 위험자산가격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은 제한적
- 불편한 매크로 환경에 따른 시장 조정에도 장기적으로 미국 성장 경로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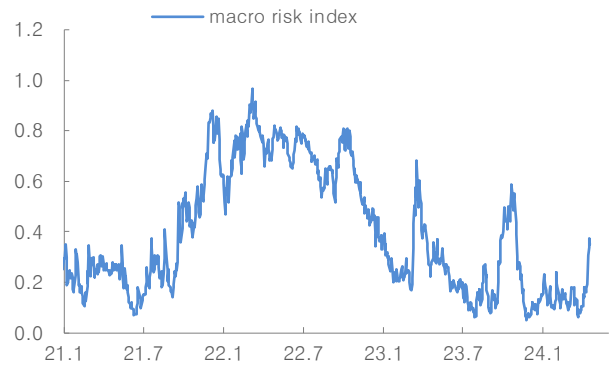
지난 1분기 글로벌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시현했으나, 최근 또다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고유가, 고금리 여파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주 양호한 미국과 중국의 1분기 실물경제지표 발표에도 시장 변동성은 확대되고 주식, 채권 가격은 동시 하락했다.

당분간 물가 및 비용 부담이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 조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물가 하향안정 기대로 상승했던 미국 소비심리지수도 최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함께 하락 전환했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확전 경계감은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 내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가 하단을 높이는 요인이다. 미국이 중국 디플레이션 수출 경계에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언급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물가 부담에 연준이 금리인하 의지를 낮추면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달러 강세에 미국외 국가들은 수입비용 부담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경기 부진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경기침체 우려가 형성되면서 급격한 위험자산가격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 고용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준은 여전히 성장 정체에 대한 경계가 높아 고용시장 충격 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했던 소비 개선 속도가 다소 둔화되면 수요측 물가상승압력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분기에는 기저효과, 주거비 안정 등이 물가상승률을 낮춰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도 다시 완화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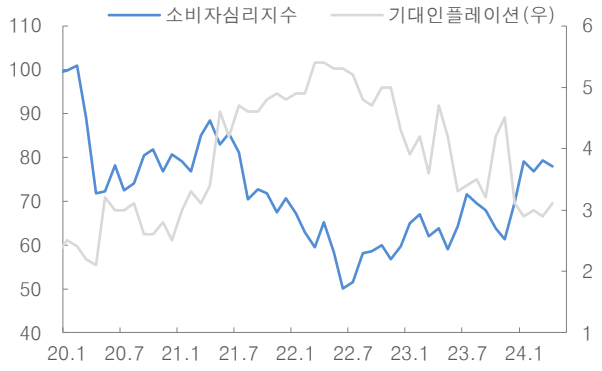
미국 기업 실적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매크로 환경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양호한 실적에도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하반기 미국 물가 하향 안정 가능성이 여전하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제조업 리쇼어링 관련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구조적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국에 대한 선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매크로 불안 확대**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유가, 기대인플레이션 높아지면 소비 심리 위축**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하연)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